



대전주보

<2024년 사목교서 표어> 성사 은총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공동체

발행 김종수(제2808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정안공소(공주신관동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2년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 2024년 9월 29일(나해)

제1독서 민수 11,25-29

화답송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당신의 종도 이 가르침 익히리니, 이를 지키면 큰 상급 받으리이다. 저도 모르는 허물 누가 아오리까? 숨겨진 저의 잘못 씻어 주소서. ◎
- 오만한 자에게서 당신 종을 지켜 주소서. 제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가 흠 없이 살며, 크나큰 죄악에서 깨끗해지리이다. ◎

제2독서 야고 5,1-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복음 마르 9,38-43,45,47-4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신학교 지원반
10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명례방



홍성·서산·당진·보령 예비신학생 모임
10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홍성성당



관점 성찰



안성준 도미니코
대전모이세 전담

오늘 복음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 이전에 제자들은 마귀가 들린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달라는 사람들의 청을 듣지만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와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은 이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자신들도 못한, 그래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행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지난 기억이 분명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곤 질투하는 마음과 함께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막아야만 자신들이 제자라는 체면이 설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제1독서를 통해서도 그려집니다. 하느님의 영을 받은 원로들이 모세만이 할 수 있던 예언을 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주인이신 모세님,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제자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재미있는 모습이지만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시기, 질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이 감정으로만 끝나면 좋으련만, 보통 이 감정은 그 대상을 깎아 내리거나 소외시키거나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의 말에 이렇게 말씀하십

니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어떻게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졌느냐?’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시선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기, 질투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생각하여 시기하는 것이냐? 차라리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였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위치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온 백성이 예언자가 되어 하느님의 일을 이루는 데 협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보는 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자리나 체면 등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졌느냐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죄란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일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자신의 안위나 체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며 강한 어조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성찰하면서 죄에서 벗어나 주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민주일을 맞아 이민과 난민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찰하고, “이주민과의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교황님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1089)
유판식 토마스

수도성소는 곧 하늘 나라를 사는 것

축성생활(수도생활/봉헌생활)에 대한 정의와 해설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하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봤을 때 축성생활은 하늘 나라를 미리 사는 것이며 하늘 나라의 탁월한 표지가 됩니다. 하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으뜸가는 것이 복음적 권고의 삶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축성생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단순하고 짧은 비유이지만 축성생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밭을 발견하고, 가진 것을 팔고, 그 밭을 사는 3단계의 모습이 축성생활의 복음적 권고의 삶이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밭을 발견하는 삶(정결) :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밭을 발견한다는 것은 “갈라지지 않은 마음”(1코린 7,34)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기울이는 순수한 마음 곧 정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들이 많지만 오로지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좋은 밭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진 것을 파는 삶(가난) :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소비주의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유행 타는 것을 안 사면 삶이 허전해지고 무의미해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에 축성생활은 가지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파는 삶, 내놓는 삶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을 챙기는 것과 정반대로 나의 것을 나누는 멋진 삶입니다.

밭을 사는 삶(순명) :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산다면 내 소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차나 핸드폰을 산다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늘 나라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나라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한다면 하느님의 소유가 됩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젊은이들이여! 함께 하늘 나라를 살아갑시다!!!

아를 세비에르 수사 신부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도회 성소 담당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32. 음식은 먹을 만큼만 요리하기

9월 29일은 덴마크 정부가 2020년부터 지정한 ‘음식물 쓰레기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생활 폐기물의 약 29%를 차지하고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 약 70%는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합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2021년 기준 사료(49.7%), 퇴비(26.5%), 바이오가스(14%), 기타(8.6%)로 재활용됩니다. 이 중 퇴비화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진 메탄이 발생되어 마냥 친환경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는 생산된 식량 전체의 거의 3분의 1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버릴 때마다, 그 음식은 마치 가난한 이들의 식탁에서 흩쳐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50항)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적절히 구매하고, 구매시 유통기한(혹은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적당히 요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은 재료를 잘 활용해서 요리하고, 정기적으로 냉장고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고 가정과 공동체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전환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분도! 신학교 가야지?”

지난 8월 29일 영면하신 백요한 신부님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저만 보면 하셨던 말씀입니다.

1975년 서산동문동본당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실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고등부 학생회장을 맡았던 저는 신부님과 자주 별 수밖에 없었던 터라 신부님은 항상 저만 보면 “분도! 신학교 가야지?” 하셨습니다.

서산동문동본당에는 부임하신 그해 팔봉면 어송리 출신 조규식(세례자요한, 성사전담) 신부님께서 서품을 받으셨고, 읍내 출신 민병섭(바오로, 성사전담) 신부님이 왕고삼 신학생, 상흥리공소 출신 황선영(라우렌시오, 조치원본당) 신부님과 대곡리공소 출신 김기만(알베르토, 연무본당) 신부님이 새내기 신학생이었지요.

제 부친께서 “성당에만 가면 밥 먹여 주냐?”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성당에서 살다시피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본당의 굶은일도 하고 신부님을 돕다 보니, 신부님께서는 제가 신학생이 되기를 바라셨지요.

특히 신부님께서 주일 교중미사를 드리고 여러 공소를 다니실 때는 항상 저를 대동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성사를 주시는 동안에 저는 성사 보러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미사 준비를 한 후 미사해설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소도 없고 너무 부족해서 신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생일 때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서산으로 내려와 신학생처럼 본당 일을 도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겨울방학 때인 1978년 1월 2일부터 1주일 동안 신부님과 민병섭 학사님을 모시고 대곡리공소에 교리를 가르치시는 데 따라 다녔던 일이지요. 옛날 일기장을 펼쳐 보니 그대로 남아 있네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하얀 눈이 집과 마을을 덮어 산과 들이 온통 은빛 찬란한 시골길을 한참을 걸었던 기록이 있네요.

재미있는 추억도 있지요. 1978년 5월 16일 신부님은 경축 행사가 서산동문동본당에서 성대하게 열렸고, 황민성 주교님도 오시고 두봉 주교님도 오셨지요. 민병섭 학사님과 쉼 복사를 해야 하는데, 복사옷이 없어서 신부님의 옷을 입었더니 커서 자꾸 발에 밟혀 넘어질 뻔했던 일도 있었지요.

또한 신부님의 주선으로 조카인 Chantal Blanc과 3년여 동안 펜팔도 해 보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불어를 공부하다 보니 신부님을 줄라 조카를 소개받고 편지를 주고 받았지요. 잘 할 줄 모르는 불어로 편지를 쓰다가 잘 모르면 신부님께 보여드리고, 해석을 해 달라고 하면서 신부님과 가깝게 지내던 기억도 나네요.

이제 신부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신부님께서 천상영복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리며, 한마디 올립니다.

“신부님! 비록 신학교는 못 갔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최효근 베네딕도

성지를 걷다_진산성지(3)

3. “윤지충, 권상연, 윤지현이 전해준 뜻” - ‘땅에 물어보면 안다’ 중에서

윤지충과 순교자들은 “사랑”은 곧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임을 이해하고 알아들은 분들이다. 유교의 틀, 양반이라는 직분, 처자식, 더 나아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내려 놓았던 것이다.

윤지충과 권상연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순교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당시 일반인들은 임금님의 명령을 “하늘의 명령”으로 여겼다.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임금의 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임금의 명령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에 있다고 단언했다. 천주교 신앙을 통해서 당시 최고의 권위를 차지하고 있던 임금의 권위를 상대화시켰다. 국법을 어기고 하느님의 법을 따랐다. 기존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뒤엎고 새로운 삶을 택했던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신분제도)에서 평등을 주장하며 당시의 봉건사회로부터 출애굽을 시도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서막을 열게된 분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윤지충과 권상연, 윤지현은 순교자가 되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 글·그림 진산성지



교구알림

성남동본당 생태영성교육

- 1강 : 10.13(주일) 10:00
- 쓰고 버리는 문화와 우리의 생활양식
- 2강 : 10.20(주일) 10:00
- 기후위기시대의 찬미받으소서
- 주최·주관 : 성남동성당·생태환경위원회
- 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10월 평화기원 월례미사

- 때·곳 : 10.22(화) 19:30, 가수원성당
- 미사집전 : 대전민화위 위원사제
- 문의 : (042)636-1331



전담사목

2024 가톨릭공직가족 홍주성지 순례 및 피정

- 때 : 10.12(토) 09:00~16:30
- 곳 : 홍주순교성지(홍성군)
- 내용 : 성지순례, 특강, 문화공연, 미사(한정현 스테파노 주교) 등
- 대상 : 대전교구 및 전국 신자 공무원과 가족
- 접수문의 : 10.5(토)까지
기관별 천주교 공무원 교우회
- 참가비 : 2만원(식비 포함)

주일학교 부모를 위한 성령묵상회

- 때 : 10.19(토)~20(주일)
- 대상 : 교구 주일학교 부모
- 모집 : 10.12(토)까지, 선착순 40명
- 참가비 : 10만원
- 곳 : 새얼센터(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306)
- 문의 : 카톨릭친(아자리아), (042)824-6773

부부로서 하느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제6차 MR피정

- 때·곳 : 10.12(토)~13(주일), 해미 웨이크업센터
- 대상 : ME주말을 경험한 모든 부부
- 참가비 : 23만원(부부)
- 신청·문의 : 010-2960-4010(김병권), 010-2026-2010(김현)
- 인터넷검색창 : 대전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ME소개

- 때 : 10.6(주일) 15:00
- 곳 : 세종 성요한바오로2세성당, 대전가톨릭 문화회관 216호, 천안신부동성당
- 대상 : 혼인 2년 이상된 부부(종교 불문)
- 문의·신청 : 010-9746-0179, 010-3637-9746
교구 가정사목부 <http://familia.djcatholic.or.kr>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논산대건고등학교 학교설명회

- 때 : 10.12(토) 10:00
- 대상 : 2024년도 중3학생과 학부모
- 곳 : 본교 마리아홀(강당)
- 내용 : 학교 프로그램 및 2028 대입 안내
- 설명회 후, 캠퍼스 투어 및 개인상담 가능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모집

- 대상 : 대전광역시 거주 성인 장애인
- 이용 : 월~금 09:00~17:00 / 공휴일 휴무
- 이용료 : 월 15만원 (식대포함)
- 문의·신청 : 070-7858-2498

대전평화방송 아도르페 (시니어)합창단원 모집

- 대상 : 만55세 이상 남녀 가톨릭신자
- 연습시간 : 매주 (월) 1부 10:30, 2부 19:30
- 연습장소 : 선화동성당
- 문의 : 010-7933-8248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치매전문병동’ 운영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성사 생활 가능
- 간호·간병·조리 인력 상시 모집
- 문의 : (041)950-1008

무료 상담소 “에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오후 6시부터)
- 읍내동 현대아파트 정문 옆 상가 2층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9월 월례회 일일 연수

- 때 : 9.30(월) 09:30~16:10
- 곳 : 정하상교육회관
- 참가비 : 1인당 4만원
- 입금 : 농협 352-1700-5295-03 예금주 정남숙 / 참석자 성함으로 입금 후 반드시 문자 메시지 발송 요망 (010-9407-2544 회계 정남숙 챔바)

파티마 세계사도직 (셀)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 때 : 10.5(토) 시작기도 10:00, 미사 11:00
- 곳 : 가톨릭문화회관(대흥동)
- 문의 : 010-4939-8688

대전 가톨릭성서모임 성서그림공부 연수

- 제102차 마태오 연수
- 10.11(금)~13(주일) 09:30~15:30
- 제103차 창세기 연수
- 10.26(토)~27(주일) 09:30~15:30
- 대상 : 각 그림공부 이수한 사람
- 곳 : 가톨릭문화회관(온라인 동시 병행)
- 연수비 : 5만원
- 문의 : 010-4228-0470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43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 국가 : 캐나다, 필리핀
- 대상 :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 성인 및 대학 어학연수
- 문의 : 국제교류팀 (053)593-1273
- 화상영어 수업 접수 가능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때 : 2박3일 10.18(금)~20(주일), 11.15(금)~17(주일), 12.13(금)~15(주일) / 시작 17:00~마침 15:00
- 곳 : 수원교구 양지영성교육원
- 피정비 : 20만원
- 문의 : (031)321-9054, 9060, 010-4154-0885

교구 성령새신봉사회 프로그램 안내

장소 : 새얼센터 / 문의 : (042)824-6771

프로그램	때	내용	비고
기도의 밤	10.3(목) 19:00	기도회, 미사, 안수 등 강사 : 전정숙(성령새신봉사회 봉사자)	
천안아산지구 말씀피정	10.4(금) 13:30	말씀, 미사, 안수 등	곳 : 천안청당동성당 문의 : 010-9697-6772
치유의 밤	10.10(목) 19:00	미사, 말씀, 안수 등 강사 : 김선미 수녀(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이화병원

이종민(카타리나) 김지연(아네스)
산부인과(수술전문)/유방외과/MRI·영상진단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내과/신경과/인공신장실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65 T. (041)579-1400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등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어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라피, 이콘
-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전례초 과제전 전시회(10.6~11) 10:00~18:00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2024 한티가는길 행사

- 때 : 10.26(토) 09:00~16:00
- 인원 : 2,000명선착순 / 1만원, 중식포함
- 신청 : hantigil.hanti.or.kr
- 주최 : (사)한티(한티순교성지)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평신도 영성강좌

- 때 : 10.11~11.15 매주(금) 19:30~21:30 (6주)
- 곳 : 천안신방동성당
- 주제 :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오병이어-사랑의 힘, 공동체로 초대받은 우리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 수강료 : 8만원 / 청년할인 50%
- 문의(접수) : 한국CLC 010-4824-8344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3차 모집

- 접수 : 9.2(월)~10.2(수)
- 전형일 : 10.5(토)
- 모집 :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게임그래픽& 만화애니메이션/게임개발
-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 문의 : (02)705-8678, www.soganggame.ac.kr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5전기(주간)신입생모집

- 석사 :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 박사 : 신학(교의·조직/영성), 영성철학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 원서접수(1차) : 9.30(월)~10.10(목)
- 전형일 : 10.19(토)
- 문의 :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단기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온라인)

- 때 : 11.4(월)~14(목) 19:00~21:00
- 대상 :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사제, 수도자
- 진행 : 실시간 온라인 교육
- 비용 : 10만원
- 문의 :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1차 : 9.9~10.2
- 문의 : 입학홍보처, (054)851-3021~2
- http://ipsi.csj.ac.kr

AuthenticMovement를 통한

진정한 내면의 소리듣기 동작치료 워크샵

- 몸-마음-영성의 통합과 치유
- 때 : 10.19(토) 14:30~17:30
- 곳 : 가톨릭문화회관 401호(대흥동성당)
- 문의 : 협동조합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국악성가 한발합창단 단원모집

- 지휘 : 강수근 신부
- 연습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 곳 : 둔산동 성당
- 문의 : 국악성가연구소 총괄실장 010-2279-0255

수도회 및 피정

예수수도회 영성대학 신입생 모집(목요반)

- 대상 : 성경공부 이수자로 이나시오 영성에 관심있는 분
- 기간 : 3년 과정 (오전/저녁반)
- 곳 : 예수수도회교육센터(성모학교내)
- 문의 : 010-5969-4714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성소모임

- 대상 : 만 45세 이하 미혼여성(상시 상담가능)
- 문의 : 010-9199-4995

말씀과 함께 성체조배 기도

- 때 : 10.12(토) 09:00
- 선착순 10명
- 곳 : 성체 선교 클라라 수녀회
- 문의 : 010-8683-6848 (문자 접수)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 피정안내

-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 10.11(금)~13(주일)
- 성경완독 : 11.1(금)~9(토), 12.6(금)~14(토)
- 문의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성

- 1차 : 12.4(수) 15:00~5(목) 13:00
- 2차 : 12.18(수) 15:00~19(목) 13:00
- 곳 :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참가비 : 8만원 /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 010-6791-0071(문자)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 2차 : 11.8(금) 15:00~9(토) 13:00 / 공지영 작가
- 3차 : 11.15(토) 15:00~16(주일) 13:00 / 김탁환 작가
- 곳 :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참가비 : 9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 010-6791-0071(문자)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말씀여행
- 곳 : 성이시돌 피정의집 (통합사목센터)
- 때 : 11.1~3, 11.15~17
- 대상 : 개인, 단체 (본당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 문의·접수 : 010-9670-9775, 010-2231-2074



때 : 2024.10.12(토) 오후 2시
곳 : 황새바위순교성지 부활광장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59.7°C

총 모금 597,695,220원

[9.8~14 모금액] 11,662,230원
본당 2,987,430원 / 개인·기관·행사 8,674,800원

미카엘 여행사 국내·해외성지순례

10/17 베트남 다낭 5일 10/28 베트남 나트랑·달랏 5일
11/2 홍콩·마카오 4일 2/6 스페인·포르투갈 12일
(대전·청주출발) 제주·한국성지167 모집중
정상훈 미카엘 010-8650-9690

행복나눔 이사

사무실 이사, 포장 일반 이사
이종수(야고보) 김영숙(실비아)
T. 1877-9924, 010-2575-2176

더 웰 피부과

박장규(안토니오) 김형주(방지거)
유성점 T. (042)825-3045
유성온천역 6번 출구

김벨 피부과병원

국내 유일 피부과 2차병원
T. (042)471-7575, 1588-5678
정부청사역 2번 출구

보나투어 성지순례

9/23 성가정 이집트 피난순례 13일 585만원
10/20 서유럽 성모발현지 순례 11일 465만원
10/3, 11/4 중국 상해 성지순례 4일 109만원
문의 (02)732-4578 www.bonatour.co.kr

구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우울증, 공황장애)
원장 구미량(헬레나)
롯데백화점 건너편 T. (042)532-7009

건강한 음식 건강한 영혼

슈바인 학센

+ 새로 나게 하소서!

올 여름은 모든 것을 다 익혀 버릴 듯한 무더운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 시원하게’와 같은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많이 연상되는 것이 맥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맥주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음료라고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접하는 맥주는 라거와 에일로 구분하는데 이는 효모에 따른 분류입니다. 효모는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입니다. 라거 맥주는 발효가 끝나면서 바닥에 가라앉은 효모를 사용하여 만든 맥주로, 산뜻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카*, 테*, 하이네* 등). 에일맥주는 발효 중 표면에 뜨는 성질을 가진 효모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알콜도수가 높고, 쓴맛이 강한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호가*, 기네* 등). 이런 맥주를 마실 때 치킨, 피자, 소세지 등의 음식을 곁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메뉴는 맥주를 이용하여 만드는 독일식 돼지족발요리 ‘슈바인 학센’입니다. 돼지 다리를 구워서 만든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요리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독일 요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족발은 콜라겐이 풍부하여 피부의 탄력과 보습에 도움을 주고, 모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족발에 들어 있는 단백질은 모유의 질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으나 지방 함량이 많으므로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재료

돼지 앞다리 한 개 600g 정도(뒷다리는 앞다리보다 지방함량이 더 많음), 통후추 10g, 올리브오일, 흑맥주

1,500cc, 월계수잎 4장, 소금 100g, 통마늘 10개

만드는법

- ① 돼지 앞다리를 차가운 물에 담가 핏물을 뺍니다. 대략 30분 정도 (냉장 상태일 때)
- ② 냄비에 맥주 1,500cc를 넣고, 통후추, 월계수잎, 돼지 앞다리를 넣고 2시간 재워 둡니다.
- ③ 돼지 앞다리에 칼집을 넣고, 통마늘을 칼집 안으로 넣고 둡니다.
- ④ 소금, 올리브오일을 앞다리에 바릅니다.
- ⑤ 오븐 온도를 180도에 맞추고 2시간 정도 구워 냅니다. 재우고 남은 흑맥주를 용기 바닥에 부으면서 익힙니다. (오븐 안에서 맥주가 끓으면서 증기가 족발에 풍미를 증가시킴)

겉바속촉이 만들어지면 시원한 맥주와 독일식 양배추 절임인 ‘샤워크라우드’, ‘허니머스타드’ 또는 ‘그레이비소스’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요리이긴 하지만, 조리법이 복잡하지 않아서 소모임이나 작은 파티에 적합한 요리입니다.

무더위에 가족과 또 구역분들과 ‘슈맥’(슈바인 학센 + 맥주)으로 무더위도 날리고, 서로 간의 친교의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영욱 알렉산델 외식컨설턴트

참조 : 나무위키, 카테일실습/박영배 저

프란치스코 교황방문 10주년 기념행사

- 때 : 기념 음악회 10월 19일(토) 18:30~21:00
상설행사 10월 19일(토)~20일(주일) 14:00~21:00 (자세한 내용 솔뫼성지 홈페이지 참조)
- 곳 : 솔뫼성지
- 참여 : 인순이, 고유진, 대전교구 소년소녀 합창단, 대전교구 챔버 오케스트라, 당진지구 연합성가대, 세종 크레센스 합창단, 해봄(가야금 공연)
- 문의 : (041)362-5021 솔뫼성지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 종신서원식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9월 10일(화)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에서 종신서원식을 주례했다.

관저동본당 소고기 나눔 행사



관저동본당(주임 박찬인 신부)은 추석 및 주임신부 영명축일을 맞이하여 8월 31일(토) 소고기 나눔 행사를 신자들에게 진행했다.

사목회 및 단체 봉사자가 8월 중순부터 소 구입, 도축, 포장, 판매 등 전과정을 진행하여 우수한 품질의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신자들에게 나눔하는 행사를 했다.

세종성요한바오로2세본당 식혜작업



세종성요한바오로2세본당(주임 김민엽 신부)은 8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성전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여성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각 구역 공동체는 식혜만들기 작업을 했다.

목동본당 청년성가대 '소리찾기' 발표회



목동본당(주임 김현홍 신부)은 9월 7일(토) 제25회 '소리찾기' 발표회를 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라는 주제로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고, 200여 명의 관객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정의평화위원회 소성리 평화미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신부)는 9월 9일(월) 성주 소성리 연대자의 집에서 교구 정의평화위원 및 연대자 등 13명이 모여 소성리 평화미사를 봉헌했다.

미사 후에는 명절 전 성묘를 겸하여 조현철(프란치스코) 형제가 있는 곳에서 주모경과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한 후 자리를 마쳤다.

아산지구 청년 연합미사



온양풍기동본당(주임 양희창 신부)에서 9월 6일(금) 아산지구 청년 연합미사가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에는 청년 외 봉사자포함 80여 명이 참여하였고, 미사 후 ‘양떼를 도와주세요’ 질의응답시간을 가진 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원신흥동본당 함께하는 북부지구 “중고등부 연합체육대회”



원신흥동본당(주임 이진욱 신부)은 9월 8일(주일) 미사 참례를 시작으로 대덕 종합운동장에서 북부지구 “중고등부 연합체육대회”에 참여했다.

온양풍기동본당 가정 제례 특강



온양풍기동본당(주임 양희창 신부)은 9월 8일(주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에서 행하는 ‘가정 제례’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날 강사는 교구 홍보국장 강대원 신부가 초빙되었다.